만민에게 부어질 여호와의 영(욜 2:28~32) 2026년 5월 24일

1.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은 성령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신지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3. 그날을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이란 50일째를 말하는데, 유월절 이후, 50일째이지요.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오순절 성령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예수승천 후 열흘 째이기 때문에, 승천일이 목요일이고, 성령강림절은 항상 주일이 됩니다.

4. 그 날의 일들을 묘사한 누가는, 어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성령강림의 의미를 밝혀 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이 사건이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미리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5. 그 계획서를 찾아보자면, 요엘서 2장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한 대로 읽자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이지요.

6. 그래서 그 다음, 그 약속대로 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까지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 바로 17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이지요.

7. 이것과 비슷한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요한 1서지요.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새계명"을 말할 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다시 "청년들아~"라고 부르고, 또 "아비들아~"라고 부릅니다.

8.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성령을 받을 자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자녀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의 모습을 따로 따로 말하는 것이지요. 적용해 보자면, 새계명이 주어졌을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환상을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 조차 꿈을 꾼다는 말이지요.

9. 갑자기 이 말씀을 요한 1서와 비교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과 그것을 묘사하는 것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오순절 예루살렘에서는 방언이 터졌기 때문이지요.

10.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르면, 오순절 성령강림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11.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이란, 마치 방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건, 어린이와 어른과 늙은이들에게 일어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말이지요. 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12. 계속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욜 2:30)"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인용하면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행 2:19)"라고 했습니다.

13. 요엘서 원본과 베드로가 내뱉고 있는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피와 불과 연기"는 똑같은데, 요엘서에서는 그것이 "이적"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원문과 그걸 인용한 베드로, 그리고 그의 설교를 기록한 누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이라 하겠지요?

14. 이걸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피와 불과 연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기사와 징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이것을 "이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기사와 징조"라고 불렀지만,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지요.

15. 언젠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직 발굴 중인 곳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지요. 그건 거의 3천년이나 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바닥에는 거대한 하수시설이 있는데, 성전이 파괴될 때, 사람들이 그 하수도 속에 숨어서 도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6. 명절에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대략 2백만 마리의 양이 도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하수시설이란, 그 짐승들의 피를 씻어서 흘려보내던 관이었지요.

17. 그러니까 오순절이든 유월절이든, 1년에 세 차례 있었던 제사의 모습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제사란, 거대한 피의 물결과, 짐승의 살을 태우는 맹열한 불과, 그 내장과 가죽을 태우는 거대한 연기기둥으로 점철된 것이지요. 피와 불과 연기는 곧 제사라는 것입니다.

18.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제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 사건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순절 성령강림때에 여호와의 영을 기름붓듯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의 화목제사라는 말입니다.

19.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에 이르는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욜 2:31)”

21. 이 예언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십자가 못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찬송가 143장 3절)” 이 역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최후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22.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강림절의 의미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자신의 영,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23.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면, 그래서 그가 저 오순절 성령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이 했던 것처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말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4. 그러나 그에게 뿐이겠습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영을 받은 모든 자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약속?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 다름 아닌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25.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욜2:31)”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행 2:21)”

26.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인자가 와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 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27.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천국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 길로 들어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28. 한 가지, 베드로가 그의 설교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요엘서 2장 3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29. 이건, 누구에게나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제한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라는 말이고,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30. 그래서 감히 여러분 앞에 오늘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 심판 중에 남은 자가 있거들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